

책 많이 읽어도 국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어릴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왜 중·고등학교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초·중등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가 털어놓는 대표적인 고민이다. 수능 국어는 대학에서 전공 서적을 읽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고교 진학 후 문제집만 무작정 푸는 주입식 공부에서 벗어나,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추어 생각의 근육을 정교하게 키우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

성적을 망치는 첫 번째 함정은 “국어는 우리말이니 쉽다”라는 안일한 착각이다. 이로 인해 초·중등 시절 국어 공부를 방치하다가 고등학교에 이르러서야 문해력의 한계를 마주한다. 두 번째 함정은 “학교 시험범위의 지문만 외우는 암기 공부”이다. 내신 국어는 범위가 한정되어 지문을 기계적으로 외워 푸는 임시방편이 통하지만, 수능은 낯선 외부 지문으로 독해력을 평가하므로 평소 스스로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세 번째 함정은 “문학에 편중된 독서 습관”이다. 초등 고학년부터는 비문학 영역의 글감을 조화롭게

읽어야 한다.

평가원의 수능 안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능 국어의 평가 가제는 다섯 가지 행동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어휘·개념’은 단어의 문맥 속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학술적 기본 범주를 이해하는 독해의 기초이다. 둘째, ‘사실적 이해’는 명시된 정보 간의 연결과 비례 관계를 왜곡 없이 판별하는 사실 검증 능력이다. 셋째, ‘추론적 이해’는 직접 서술되지 않은 숨겨진 소전제와 생략된 인과 고리를 미루어 짐작하는 사고력이다. 넷째, ‘비판적 이해’는 글의 타당성과 편향성을 날카롭게 따져 검증하는 역량이다. 다섯째, ‘적용·창의’는 본문의 원리를 미지의 상황에 투사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종합적 지능이다. 이 영역들은 초·중등 단계의 정교한 훈련을 거쳐 발달한다.

초등학생 시기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상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므로 어휘와 사실적 이해를 다지는 공부가 효율적이다. 먼저 ‘한자 형태소 분해 놀이’를 권장한다. 수능 독서 지문 속 단어의 대부분은 한자어로 구성된다. 이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형태소 단위로 쪼개어 개념을 추론하게 돕는다. 예컨대 ‘전도(顛倒)되다’에서 ‘엎드러질 전(顛)’과 ‘넘어질 도(倒)’를 떼어내어 ‘머리가 거꾸로 뒤집히는 모양’을 연상케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1단락 1문장 요약 훈련’을 보강한다. 설명문을 읽고 문단마다 핵심 명사와 서술어를 조립해 ‘카멜레온이 체온 조절과 천적 회피를 위해 몸 색깔을 바꾼다’처럼 완성된 한 문장을 만드는 훈련은 문장을 교묘하게 뒤트는 수능 선택지의 함정을 차단하는 힘이 된다.

중학생이 되면 추상적인 가설과 기호를 다룰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의 입구에 들어서므로 추론과 비판적 사고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첫째, 글의 갈래별 흐름을 예측하는 ‘구조 독해’를 훈련한다. 과학 지문은 ‘장치 구성 요소와 작동 순서 관계’, 경제 지문은 ‘제도의 작동 조건과 변수’라는 거시적 전개 패턴을 예측하며 읽는 방식이다. 둘째, 정보 간의 비례 관계를 정리하는 ‘정보 매핑’을 생활화한다. 줄글로 엮힌 문맥을 ‘이자율 하락 → 통화 공급량 확대 → 화폐 가치 하락 → 물가 상승’과 같이 노트 여백에 화살표로 정리하는 공부이다. 이 훈련은 수능의 함정인 ‘인과관계 왜곡’을 시각적으로 격파하도록 돕는 강력한 추론 도구가 된다.

수능 최고난도 문항은 비판적 이해와 적용·창의 영역에서 출제된다. 이를 단련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상반된 시각을 다룬 두 편의 대립 칼럼을 나란히 읽고 상대방 주장의 맹점을 찾아 반박을 적는 ‘크로스 독서법’을 연습해야 한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핵심수합 구상 공식화… 배보다 먼저 준비할 것들



기지 수첩

유 혜 온
(산업부)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SSN) 개발 사업인 ‘장보고 N’ 구상을 공식화했다. 오는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조선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업과 민간 원전 기술을 보유해 개발을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국제적 허용과 운용 인력이라는 벽이다.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외교·법적 문턱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에서 이전된 핵물질과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 핵

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군사 목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미국산 핵연료와 관련 기술의 이전, 핵연료 조달·관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도 미국 조선소 활용을 언급한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수요뿐 아니라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일자리 확대, 핵추진 기술 관리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더 시급한 건 사람 문제다. 핵연료, 플랫폼, 원자로를 모두 확보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운용할 전문 인력이 없다면 전력화는 불가능하다. 승조원과 원자로 운전원, 방사선 안전요원, 정비 인력 등 다층적인 전문 인력과 장기간의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해군 원자로 안전·운용 체계와 프랑스의 저능축우라늄(LEU) 기반 잠수함 운용 사례는 충분히 참

고할 만하다.

문제는 미국 역시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호주 오크스(AUKUS) 지원과 자국 핵잠수함 건조·정비 수요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인력과 생산 능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인력에 대규모 교육 기회를 제공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해야 할 반대급부는 조선업 경쟁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정비 역량을 활용한 비핵 분야 협력과 미국·호주와의 교육·인력 교류를 연계하는 ‘한·미·호 협력 모델’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보고 N 사업은 핵연료의 도입부터 운용, 정비, 최종 해체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의 완전한 핵추진잠수함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결국 전력을 완성하는 것은 이를 운용할 사람과 제도이며 지금부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dhalehdhal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3일 (음 6월 1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60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72년생**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중요합니다. **84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좋습니다.



49년생 한가지에 꾸준히 매진하세요. **61년생** 두 가지 소원은 전부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73년생** 도모하고 있는 일은 빨리 시행하세요. **85년생**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50년생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힘듭니다. **62년생** 연인과 다투거나 이별수가 있겠습니다. **74년생**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됩니다. **86년생** 어려운 시험에 당당히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51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63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좋습니다. **75년생** 해외 여행이 꿈인데 몸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87년생** 생활에 고통 받습니다.



52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납니다. **64년생**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76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88년생**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53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65년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7년생**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하세요. **89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호전됩니다.



54년생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입니다. **66년생** 좀 더 정성껏 치성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78년생** 남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90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55년생 가세는 확장되고 만복이 찾아옵니다. **67년생** 가끔씩은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세요. **79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1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56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68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80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92년생** 기다리다 시간 놓친 격이니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57년생 건강은 건강할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69년생** 무난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81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93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58년생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즉시 추진하세요. **70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8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4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59년생 크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71년생** 양다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83년생** 늦바람을 특히 조심하세요. **95년생** 이성 문제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행복한 신행 생활

필자는 어릴 적 잠시 크리스마스 때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의례 성탄절야 행사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다. 예수님이 말구유가 있는 마구간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동방박사들의 예방을 받는 모습들을 연극으로 재연하던 장면도 떠오른다. 어린 마음에도 느꼈던 것이지만 뭔가 따뜻하고 경건한 마음이 솟아오름도 느꼈다. 그 이후 종종 보게 되는 성경 구절 중 주옥같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구절도 생각이 나곤 한다. 시편의 한 구절로 기억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청명한 하늘에 흰 구름 떠가는 평화로운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으며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조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그림처럼 그려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것처럼 불자인 필자는 역시 어두운 밤 등불에 의지하여 배가 항구를 찾듯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고 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 통용되는 신앙 진리다. 다만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는 초하루나 보름 또는 특별한 간지일에 밤샘 기도를 통한 신행가피를 이루어나가기도 하지만 다도와 명상도 함께 하는 신행을 함께 하고 있다. 마음의 등불을 찾듯 행복한 신행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지금은 서오릉 근처에 마련했던 월광사 본당이 주변의 택지개발 등으로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 한 조금은 좁아도 충정으로 터에서 소소하게 기도와 명상시간을 갖고 있다. 기도하는 마음은 기본이지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욕심일 뿐이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과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생의 존재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기도이자 행복한 신행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3	8	6
7				5			
	8					4	5
			6			7	
			8	4			
	5		9				
5	9					1	
			4				8
8	6	3			5	2	

	8	7	4	2			
			9			1	3
							4
							2
7				6		2	
1							3
	3		7				1
6							
2	5	4		7			
			3		9	5	4